

[기획논문]

서울 강북구 문학공간 연구

임수경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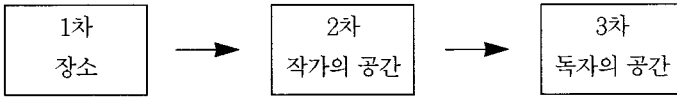
차례

- | | |
|------------------------|----------------------|
| 1. 서론 | 4. 강북구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 |
| 2. 역사성과 사회성이 혼재된 공간 | 5. 결론 |
| 3. 도심과 자연, 변화와 정체성의 공간 | |

1. 서론

문학작품은 실재성을 통해서 존재가 지니고 있는 뜻을 현상할 수 있다. 작품 속의 공간은 그 자체가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 사회성으로 공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는 작가가 변용시킨 직관공간에 해당한다. 이는 독자에 의해 변용된 또 하나의 이념공간으로 더욱 심화된 창조적 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

1) 하르트만은 예술작품을 전경(前景)과 배경(背景)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재하는 세계의 구조는 물질층과 유기층, 그리고 심리층과 정신층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예술에 있어서 물질적 질료를 통해 정신층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권기호, 『현대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pp.310~311. 참조.)



유기적 관계의 위치에서 객관적 위치를 유지하는 작품의 공간은 충분히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일지라도 현실을 모방하여 재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주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형되고 굴절될 수 있다. 공간을 정의하는 데 '주체'의 개념 외에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다.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문학공간에 접근하는 시각은 얼마든지 변모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문학작품 활동(작가, 독자 모두 포함)은 '〈나〉에 대한 글쓰기'²⁾의 변용이다. 〈나〉에서 출발하여 공간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굴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범위를 우선 정의하고, 시간을 포함하여 문학작품을 그 공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그 문학공간을 다루고자 한다. 강북구는 북한산을 경계로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된 강북구는 대표 자연공간인 북한산을 포함하고, 역사공간인 미아동을 포함한다는 데 있어 문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문학공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학공간으로 그 특성을 나눌 수 있다.

2. 역사성과 사회성이 혼재된 공간

강북구 미아동은 민족의 비극이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미아리고개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의 서울 탈환이 성공하면서 인민군의 후퇴로 쓰였다.

2) 장석주, 『세기말의 글쓰기』, 청하, 1993, p.141.

이 때 인민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강제 납북된 일반주민들을 포함한 애국지사와 저명인사들의 아픈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1) 미아리고개

미아리 눈물고개 넘어 넘던 이별 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해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 많은 미아리고개

—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일부

병자호란 때 되놈이 넘어왔다 하여 되넘이(되너미) 고개라고도 불렸다. 이곳으로 많은 외세가 침략을 했었고, 후퇴를 했었다. 미아리고개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인민군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의 서울 탈환이 성공하면서 인민군의 후퇴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 일반주민들을 포함하여 애국지사와 저명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인민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강제 납북된 아픈 상처가 가득한 공간이다. 소중한 사람을 두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은 안타깝다. 그러나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가는 그 뒷모습을 기억하는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아련하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된 공간의식은 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에서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노래의 작사가 반야월은 피난길에 이곳에서 자식을 잃은 심정을 민족의 슬픈 역사와 맞물려 지었고, 가수 이해선의 애달픈 목소리와 어우러져 지금까지 가슴 아프게 불러지고 있다.

미아리 부근을 미아처럼 걷는다. 어디쯤일까
미아리 눈물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신세계백화점 미아점 지나
삼거리 쪽 추억장 지나 버스정류장 옆

행복장 지나 점입가경 장(莊) 장(莊)
몇십리를 걸었으나, 고개는 어디쯤일까
힘이 빠진다, 벌써 나는
미궁을 보고 있는 것일까

—천양희, 「미아리 엘레지」³⁾ 일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오십 년이 지났다. 시간은 '눈물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백화점과 각종 숙박·편의시설, 정비된 교통시설로 사람들의 '행복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斷腸)의 미아리고개는 홀려간 옛 노래 속의 '추억장'이 되었고, 그 끊어질 장(腸)은 장(莊)으로 점입가경을 이룬다.

1942년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천양희는 세상과의 불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불화를 뛰어넘어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넘어서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도 미아리고개에서는 불확실하기만 하다. 얼마나 걸었는지,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미궁을 보고 있는 것'처럼 힘이 빠진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현재의 존재도 확실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수용하려는 난제(難題)는 윤대녕의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아리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안개가 잔뜩 낀 늪지대처럼 흐려 있었다. 먼빛으로 고가도로에 반쯤 가려진 돈암동 산동네가 눈에 들어왔다. 목탄화가 비에 젖고 있어, 하고 베틀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눈물의 미아리고개인가?"

투쟁은 자못 비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방을 휘돌러보았다. 길 건너 돈암극장에서는 '여배우 엠마뉴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으며 그 앞에선 교회 합창대 사람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빗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윤대녕, 「January 9, 1993, 미아리통신」⁴⁾ 일부

3)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창작과비평사, 1994, p.90.

이 소설은 1990년대 초반의 혼돈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당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사회계, 문학계에서는 대단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회가 해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더는 개개인의 생각과 모습이 해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급속히 변하는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의 아픔이 다 씻기지 않은 곳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였다. '미아리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안개가 잔뜩 낀 늪지대' 같았다. 지나간 역사가 그러했고 지금의 젊은이들의 현실도 그러하다. 예술과 운명을 대조시키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들은 실패한 예술가 지망생들이다. 우울하고 허망한 삶을 살면서 그 시대에 예술가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위치에 굴복하고 만다는 이 작품에는, 점을 보기 위해 미아리를 방황하는 주인공들의 암담한 현실이 녹아 있다. 1990년대 당시 젊은이들의 고뇌가 비단 이곳만 있겠느냐마는, 미아리고개가 가진 역사적 배경이 겹쳐져 더욱 참담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2) 미아동—한국전쟁 이후

미아동은 1914년 경기도 고양군에 속해 있던 미아리를 1949년 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잠시 성북구로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도봉구로 분구, 다시 1995년 강북구로 속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한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 있는 사창가를 정리하면서 그 중 일부가 미아동으로 집단 이주하여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유지되어 온 미아동의 사창가는 인근에 주택 지역이 조성되고 지하철 4호선의 개통으로 강북구의 중심지가 되면서 현재는 '천호동 텍사스촌'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1970년대 미아동의 당시 상황은 1991년 소설 「취잡기」로 《경향신문》 신춘문

4) 『한국소설문학대계 100』, 동아출판사, 1995, p.368.

예에 등단한 김소진이 쓴 『장석조네 사람들』에 수록된 일련의 단편소설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구 경계선인 한길 너머 미아동 쪽으로는 철거가 끝나서 집집마다 현 보일러가 남
아돌아 너도나도 갖다 쓰라고 난리들이라고 그러더구먼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⁵⁾ 일부

한 지붕 아래 아홉 가구가 일자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 ‘기차집’이라고 불리는 장석조네를 중심으로 그들 내에서 일어나는 작고 일상적인 일들을 이야기로 담은 연작소설이다.

작품 내의 주인공은 길음동 산동네로 이사간다. 주인공인 ‘나’의 눈에 비친 미아동은 길음동과 마찬가지로 산동네지만 한참 도시 재개발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는 풍경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철거가 끝나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며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사실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의 미아동은 단지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이었다. 언제 와도 늘 그대로이고 정감 어린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도시개발이란 변화를 통해 지루하고 매번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과도기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외 소설 「장석조네 사람들」에서는 구멍가게 주인, 샴바느질꾼, 양은 장수, 고물상 등을 등장시켜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삶의 근거를 잃은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신평근배커리 간판 위의 이층집은 아귀가 잘 맞지 않는지 반쯤 열린 채 간당거리
는 낡은 여단이 창문 때문에 앞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느낌을 주었다. 지붕에는 시
골 방앗간에서나 볼 수 있는 벌건 녹물이 쓴 양철조각을 엮어놓았다. 일층의 빵집은
대낮인데도 우묵해서인지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 제각기 모양새가 다

5)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도서출판 강, 1997, p.9.

른 문밖의 유리창에 전뽕 만두 분식이라고 쓴 글귀가 붙어 있었다. 문가 왼쪽에 터진 속을 청테이프로 막아놓은 소파에 앉아 희끄무레한 콧수염 사이로 파이프를 물고 있는 한 늙은이가 앉아 있었다.

—김소진, 「신풍근배커리약사」⁶⁾ 일부

그런데 나는 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깨진 항아리 속에서 똥을 누는데 울고 싶어졌을까? (……) 아아. 하지만 여태껏 나를 지탱해왔던 기억, 그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이렇게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이 동네가 포크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깔려 가면 내 허약한 기억도 송두리째 파내어질 것이다.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⁷⁾ 일부

미아동은 도시 서민들이 가진 삶의 애환을 기록하고 고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 그 곳에 담겨 있는 기억과 추억까지 전하고 있다. 미아리 산동네가 재개발로 철거되는 것은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온 그들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또 하나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물론 길음동·월곡동 일대를 포함한 '미아리 텍사스촌'에 대한 기억은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추고 싶은, 버리고 싶은 기억마저 '나를 지탱하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뺏기는 '허약한 기억'까지도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하다.

김소진의 소설 외에도, 개발 이전의 미아동을 주된 배경으로 한 유재용의 소설 「그림자」는 분단의 현실을 가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월남한 남자와 남한이 고향인 여자의 결혼생활을 묘사하면서 결국 가슴 속 정점에 있는 문제의식에는 서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이해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6) 김소진, 「신풍근배커리약사」, 『신풍근배커리약사』, 문학동네, 2002, p.251.

7)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앞의 책, pp.32~33.

8) 서영채,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 《문학동네》, 1997, 가을호, 참고.

오십 분 뒤 그는 미아동에 가 있었다. 순애가 사는 동네였다. 그는 순애네 집으로 통하는 넓은 골목길을 주저하며 걸어 들어갔다. 순애와 마주치기 않고 순애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큰 골목이 순애네 집 쪽으로 가지를 친 셋골목 어귀에 생맥주집이 있었다. 그는 생맥주 잔을 앞에 놓고 창가에 앉아 셋골목 어귀를 지켜보았다.

—유재용, 「그림자」⁹⁾ 일부

이 작품은 소설 「누님의 초상(初喪)」을 발표하는 당시 “앞으로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역사 속의 인물들, 그것도 고향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을 소설로 다루어 보겠다”¹⁰⁾던 그의 고백처럼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사적(史的) 연구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화된 미아동은 서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서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 된다. 미아동의 산동네는 과거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은 대규모 판자촌이었지만 지금은 도시 재개발로 말끔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혼적도 없이 사라졌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정식 명칭이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겐 ‘미아리’가 익숙하다.

그 외 한승원의 소설 「사랑」과 윤대녕의 소설 「그를 만나는 깊은 봄날 저녁」에서는 길음동 부근에 집중 구성되어 있는 사창촌과 그 주변에서 바라본 그 일대 공간인식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길음동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다. “혼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한 날 밤에는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친구의 단골 창녀였다. (……) 친구는 자기의 애인 창녀를 함께 사서 공동으로 이용하자고 말했다. 친구는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먼저 일을 치르겠다고 했다.

—한승원, 「사랑」¹¹⁾ 일부

9) 유재용, 「그림자」, 최남일 외, 『호르는 북-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p.272.

10) 유재용, 「작가노우트」, 《문예중앙》, 1997. 여름호. 참고.

11) 한승원, 「사랑」, 『사랑』, 문이당, 2000, p.68.

택시는 길음동, 길음동 부근 미아리 텍사스에 우리를 부려놓고 왔던 길을 뺄하니 되돌아갔다. 우리는 막차를 놓친 사람들 마냥 택시가 사라져간 길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남기수와 나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길 한복판에서 엉거주춤 서 있다가 길옆 간이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그곳은 육탐을 못 이긴 자들이 찾아와, 행사를 치르기 전후에 빈 속을 채우고 가는 축생의 여물통이었다.

—윤대녕, 「그를 만나는 깊은 봄날 저녁」¹²⁾ 일부

사람은 외롭다. 모태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독립되면서 그들은 스스로 선천적 결핍에 힘들어 한다.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지만 그 결핍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더욱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은 정신까지 꼭 조여들어, 그 결핍은 더욱 깊고 황폐해질 수 있다. 일종의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잊고 치유하고자 하는 괴로움의 분출구로 미아동을 찾는 것이다.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의 단골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과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 미아동을 찾았지만 택시가 떠난 길에서 한참을 서 있는 일은 어쩐지 현대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삶의 애환과 닮아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아동은 낯설다. '미아리 고개'에서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다시 '미아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미아동 내에 있는 주민들과 미아동 밖에서 미아동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시대의 '변화'와 혹은 시대의 '정체'에 대하여 그 어떤 쪽으로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3. 도심과 자연, 변화와 정체의 공간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지역으로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산의 자연공간이다. 강북구는 구 전체 면적의 54.8%(12.92km²)가 공원 녹

12) 윤대녕, 「그를 만나는 깊은 봄날 저녁」, 『4대 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 1998』, 작가정신, 1999, pp.111~112.

이로 이루어져서 북한산을 비롯하여 이름다운 자연환경에서부터 오는 휴식과 삶에 대한 관조가 묻어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1) 수유동

북한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늘 넘치도록 풍부한 곳이라 하여 이름이 있었다는 수유동은, 쌍문동의 일부와 우이동을 행정관할 지역으로 포함한 강북구 주거생활 중심지역이다. 북한산과 근접해 있는 터라 수유동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변화가 많은 세상과 대조되면서 안정된 공간으로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골짜기로 이사한 지 올해로 서른한 해,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는 백운대, 인수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건만,

그 동안 세상도 여러 번 바뀌고
나 또한 늙고 병들었다.

오늘 새벽이도 이 골짜 개울가를 산책하며
바윗돌에 부서지는 흰 물줄기로 눈을 씻고
우렁찬 물소리로 귀를 행군다.

—김종길, 「수유리에서」³⁾ 일부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골짜 개울가에 흐르는 물로 눈과 귀를 씻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는 백운대, 인수봉은 늘 푸르고 깨끗하다. 늘 변하지 않는 수유리의 자연환경과는 달리 서른 한 해만에 김종길 작품의 화자는 늙고 병이 들었다. 그리고 그 화자의 눈에 세상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3) 김종길, 「수유리에서」, 『해가 많이 짧아졌다』, 숲, 2004, p.94.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자연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세상, 늙고 병든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는 세상이다. 서울의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수유동은 변함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이중적인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공간성에 접근한 작품으로는 박완서의 소설 「그 남자네 집」이 있다. 사대문 안으로의 이동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박완서의 일련의 작품 중 이 소설은 수유리에 살고 있는 ‘그 남자’와 수유리 밖에 있는 ‘나’가 속해 있는 공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대 그 남자는 수유리에 살고 있었다.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한 것 같은 반듯하고 양지바른 집이었다. 아담한 집 마당엔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들도 싱싱하고 푸르렀다. 그대를 밀은 시세 밟이고, 꽃삽, 장난감 트랙, 세발자전거 등이 나뒀고 그려져 있는 게 사람 사는 집 같아서 보기 좋았다.

—박완서, 『그 남자네 집』¹⁴⁾ 일부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우연히 후배의 집을 방문했다가 첫사랑인 ‘현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기억해 낸다. ‘나’와 ‘남자’의 엇갈린 운명, 그 운명 속에서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의 인용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유동은 ‘남자’만큼이나 깨끗하고 안정적이다. 수유동에는 ‘나’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남자’가 살던 집이 있다. “반듯하고 양지바른 집”과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들도 싱싱하고 푸르른” 공간은 기억 속 첫사랑의 애뜻한 기억과 맞닿아 있다.

수유동의 ‘푸르름’은 단순히 녹지가 많은 강북구의 실제 공간이 문학공간 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수유동이 가진 ‘변함없고 한결같음’이 알맞게 연결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남자’는 오십 년이란 세월의 풍파에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기억되는 추억의 존재이다. 현실이 될 수 있었고, 현재의 사랑이

14)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p.308.

될 수 있었던 기억 속 '남자'는 늘 푸르고 변함없는 수유동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동 안의 '남자'와 수유동 밖의 '나'는 시대 변화에 따라 현격히 대조되고 있다. 즉 '나'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남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거주했던 공간까지도 "싱그러움과 푸르름과 양지바름"의 "보기 좋았"던 공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부름으로 다시 찾은 수유동은 공간을 통해 '나'를 포함한 독자들까지도 오십 년이나 가슴 깊이 마음에 묻어둔 추억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은 시인 고정희와 관련이 깊다. 그녀가 다녔던 한국신학대학이 위치해 있는 곳이자, 졸업 후에도 주로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인 고정희가 문학으로 접근할 수 있던 정신적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에게 수유동은 종교적 순결성과 믿음을 키워준 공간으로서 신앙을 통한 삶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의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시 「서울 사랑-말에 대하여」와 시 「화륙제 별사」를 들 수 있다.

어두워 오는 저녁 일곱시
우리는 수유리 기도원으로 갔다
팔십년대 두 해를 보내는 심사가
너나 없이 답답하고 속수무책이라는 듯
철야기도회나 가자고 누군가 제의 했을 때
아무도 '아니'라고 막아서지 못했으므로
여덟 시간 근무를 마친 동료들은
사일구탑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고정희, 「서울 사랑-말에 대하여」¹⁵⁾ 일부

수유리의 신학대학 캠퍼스는

15) 고정희, 「서울 사랑-말에 대하여」,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pp.33.

가장 부끄러운 이 땅의 구호와 맞서 있었지.
이 날의 성전을 위하여
수유리의 하늘 아래선
마태수난곡 혹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이
성난 우리의 맥을 가만가만 짊어내리고
수유리에 잠든 혼령들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면
어디선가 순례자의 땀물 같은 슬픔이 밀려와
사월의 잔디 위에 바람으로 누웠지

— 고정희, 『화육제별사』¹⁶⁾ 일부

고정희는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기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풀어나갔다. 그녀가 가진 역사 의식과 여성해방의식은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인용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암울했던 시기인 1980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철야기도회를 열 수밖에 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너나없이 답답하고 속수무책”인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앙으로 귀속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시인이 나고 자란 수유동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시대가 가진 자유의 구속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던 자신과 맞서 있다는, 강한 현실참여적인 성격을 공간적으로 접근했다. 사실 이러한 공간성은 어찌 보면 앞의 박완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수유동의 고립성과 닮아 있는데, 고립성마저도 늘 푸르름으로 유지하는 것이 수유동의 특징이다.

2) 북한산

북한산은 서울시 은평구·종로구·성북구·강북구와 경기 고양시에 걸쳐 있는 서울 도심 속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로서,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한산은 최고봉인 백운대

16) 고정희, 『화육제별사』, 『한국현대대표시선』 3권, 창작과비평사, 1993, p.146.

(白雲臺)와 동쪽의 인수봉(仁壽峰), 그리고 남쪽의 만경대(萬景臺:일명 국망봉)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삼각산(三角山)이라고도 불린다. 백운대에 오르면 도봉산·북악산·남산·관악산은 물론, 서울 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강화도·영종도 등 황해의 섬들까지 보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인기가 높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서, 공원 전체가 도시로 둘러싸여 있어 생태적으로는 고립된 ‘자연섬’이지만, 도시의 ‘천연 허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휴식처로 애용되고 있다.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 체계와 거대한 배후지역으로 연평균 방문객이 5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기도 하다. 박완서의 소설 『어떤 나들이』에서는 수도권 주변 주민들이 쉽게 가을 소풍 장소로 정할 수 있는 북한산의 공간 특성이 묘사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가을 소풍날을 잊을 수 없다. 잡부금 일소라나, 그래서 소풍도 입장료나 교통비가 필요 없는 화계사로 정해졌다. 내 딸 연이는 국민학교 마지막 소풍이니 엄마도 같이 가자고 졸라 따라나섰더랬는데 설회 엄마도 있었다.

—박완서, 『어떤 나들이』¹⁹⁾ 일부

북한산에 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도 교통비도 필요없’다. 그만큼 도심과 근접해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화되어 있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북한산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휴양지인 셈이다. 이러한 특성은 김소진의 소설 『나비꿈』에서도 역시 묘사되고 있다.

새벽부터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서려 하자 진눈깨비로 변해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비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 무조

19) 박완서, 『어떤 나들이』, 『어떤 나들이』, 문학동네, 1999.

건 구과발역에서 만나 북한산 백운대까지 신년 산행을 하기로 셋이서 굳게 약속을 해둔 터라 목덜미에 달린 모자를 펼쳐 뒤집어쓰고 묵묵히 걸어 나왔다.

—김소진, 「나비꿈」¹⁸⁾ 일부

이 작품에서 북한산으로의 등산은 미리 친구들끼리 약속한 신년 산행으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에서 재충전을 하는 일종의 일탈행위이다. 특별히 ‘비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다.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는 북한산(백운대)은 자연의 풍광을 가진 혜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독립세계로 정신적 편안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최영미의 시 「북한산에 첫눈 오는 날」과 김광규의 시 「북한산 언덕길」에의 관조적 자세와 결합되어 북한산이 가진 자연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충이 무너지는 소리도 없이

죽음이 삶의 마지막 몸부림 위에 내려앉은 아침

네가 지키려 한 여름이, 가을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는 구나

내일이면 더 순수해질 단풍의 붉은 피를 위해

—최영미, 「북한산에 첫눈 오던 날」¹⁹⁾ 일부

넙적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북한산 언덕길을 올라가노라면

아무도 아름다운 경치 내다보지 않고

아무도 맑은 바람 숨 쉬지 않고

아무도 새소리 물소리 듣지 않는

음산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어

18) 김소진, 「나비꿈」, 『바람부는 쪽으로 가라』, 문학동네, 2002, p.20.

19) 최영미, 「북한산에 첫눈 오던 날」,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p.52.

죽음의 마을을 가는 것 같다

—김광규, 「북한산 언덕길」²⁰⁾ 일부

‘삶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북한산에는 ‘소리도 없이’ ‘붉은 피처럼 순수한’ 계절(가을)이 오고 간다. 적막하고도 조용히 움직이는 자연은 자신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유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산과 나, 곧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고, 더는 한걸음 물러나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지니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그곳은 오히려 세상과 떨어지다 보니 ‘음산한 저택들만 늘어선’ 별개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관조가 지나쳐 세상과 소외되고 격리되는 ‘죽음의 마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산은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바람, 새소리, 물소리가 있고, 사람세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자연세계를 이루고 있어 ‘내일이면 더 순수해질’ 모습까지 꿈꾸게 할 수 있는 희망(꿈)의 공간이 된다.

4. 문학이 남아 있는 공간

강북구의 문학공간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한국문학의 거장들이 남긴 문학유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강북구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공간과 도심의 외곽이라는 인접공간이 어우러져, 문학인들에게 문학적 안정감과 교통의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산 바로 밑 우이동에는 최남선이 살던 집인 〈素圓〉과 그의 시비가 있었던 터가 있고, 수유동에는 신석초의 거주지였던 〈枕流莊〉이 그의 시비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는 오상순의 묘와 시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산 자락 끝에는 현대 사회의 격동기에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4·19 희생자들이 안장된 4·19 국립묘지가 있다.

20) 김광규, 「북한산 언덕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창작과비평사, 1988, p.152.

1) 최남선의 거주지 <소원(素園)>의 터

북한산 아래에 있는 우이동은 행정구역상 수유4동에 포함되어 있다. 소의 귀처럼 생긴 봉우리 아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우이동에는, 시인이자 문화사업가였던 언론인 최남선의 거주지 터가 있었다.

1908년 11월 《소년》 창간호에 신체시 「해(海)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최남선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진문화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타계한 후 1958년에는 그가 말년에 기거한 <소원>정원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1975년에는 15권에 달하는 양의 『육당최남선전집』이 간행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계곡의 물소리가 그윽하게 들리고 북한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멈추지 않았던 우이동에도 도시개발은 빗겨가지 않았다. 2003년 1월 우이동 중심공간에 상권이 집중되면서 여러 고층건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소원>이 헐렸다. 우이동 성원아파트 정류장에서 우이동유원지 방향으로 가다보면 5층 남짓 먹거리고층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곳이 <소원>의 터였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찾을 수 없다. 단지 단기 4292년 10월 10일 육당기념사업회에서 <소원>의 정원에 세웠다는 최남선 기념비 앞면에는 이병도 선생이 쓴 비문과, 뒷면에는 독립선언문이 음각되어 있다는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2007년 6월에 인터넷에 올려진 개인 사진첩에,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려졌다.

여름철 큰 비 온 뒤 물 많으면 아이와 함께 집 뒤의 냇가에 작은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곳에 육당 최남선의 옛집터에 세워져 있던 '素園'이라 새겨진 돌 하나가 냇가에 버려져 있는 것을 오늘에야 봤습니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c_soldieg&logNo=10018034039)

바로 이러한 현실이 우리 한국문학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냇가에 버려진 <소원> 표지석

2) 신석초의 거주지 <침류장>

신석초는 1909년 충남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E)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육사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그는 광복 후에야 시집 『석초시집』을 간행하면서 적극적인 문단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말년을 수유동에 위치한 <침류장>에서 보냈다.

<침류장>은 백운대 밑에 위치하여 “흐르는 시냇물을 베개 삼아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가 1974년 발표한 시집을 『수유동운』이라 할 만큼 그에게 있어 수유동은 작품 활동이나 삶에서 남다른 애착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수유동에서는 <침류장>이라 남겨진 장소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3) 오상순의 묘와 시비

북한산 국립공원 빨래터 매표소를 지나면 공터가 나오고, 그 곳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공초 오상순의 묘와 그의 시 「방랑의 마음」 일부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다.

시인 오상순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김억, 남궁벽과 함께 《폐허》 동인으로 활동한 문인이다. 그의 작품은 주로 삶의 고독한 내면적 성찰과 삶에 대한 허무·방랑의 시간들을 노래했으며, 그의 방랑벽과 담배습관으로 공초(供超)라는 호를 가졌다고 한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魂)…….

—오상순, 「방랑의 마음」 일부

이 작품은 방랑 생활 속의 슬픔과 고독을 허무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은 시인 오상순이 원죄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리움에 대하여 세계를 동경하며 평생 떠돌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내면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시인이 일체의 세속적 영욕을 초월하여 독신과 방랑, 참선 등 독특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북한산 한자락의 풍경과 꽤나 어울린다.

5. 결론

서울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북구의 문학공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학공간으로 그 특성을 나눌 수 있다.

첫째, 역사성과 사회성이 혼재된 공간이다. 강북구 미아동을 중심으로, 민족의 비극이 있는 역사적 공간인 동시에 도심계획개발로 인한 변화의 공간이다. 역사적으로 상처가 많은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진 사창가가 집단 이주하면서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아픔의 공간이 도심개발로 인하여 사창가로, 다시 강북구의 상권 중심지로 변모되는 과정은 이 지역의 문학공간을 대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도심과 자연, 변화와 정체의 공간이다. 서울의 허파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부터 오는 휴식과 삶에 대한 관조가 묻어나는 문학공간 특성을 가진다. 특히 북한산의 수유동 일대는 급변화하는 도심의

풍경과 대조되면서 정체되고 안정된 문학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북한산이 가진 자연공간과 함께 형성되는 도심 생활의 안정감은 그 일대를 기억하는 문학공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문학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강북구에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한국문학의 거장들이 남긴 문학공간이 다수 남겨져 있다. 문학인인 최남선과 신석초의 거주지와 그 터가 남아있고, 최남선, 신석초, 오상순의 시비와 묘가 위치해 있다. 특히 북한산 자락 끝에는 현대 사회의 격동기에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4·19 희생자들이 안장된 4·19국립묘지가 있으니, 강북구는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편안한 휴식과 관조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4대 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 1998』, 작가정신, 1999.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한국소설문학대계 100』, 동아출판사, 1995.
『한국현대대표시선3』, 창작과비평사, 1993.

고정희,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권기호, 『현대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창작과비평사, 1988.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도서출판 강, 1997.
_____, 『바람부는 쪽으로 가라』, 문학동네, 2002.
_____, 『신풍근배커리약사』, 문학동네, 2002.
김종길, 『해가 많이 짧아졌다』, 솔, 2004.
박완서, 『그 남자네 집』, 현대문학, 2004.

_____, 『어떤 나들이』, 문학동네, 1999.

서영채,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 《문학동네》, 1997. 가을호.

유재용, 「작가노우트」, 《문예중앙》, 1997. 여름호.

장석주, 『세기말의 글쓰기』, 청하, 1993.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창작과비평사, 1994.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창작과비평사, 1994.

한승원, 『사랑』, 문이당, 2000.

http://blog.naver.com/c_soldieg&logNo=10018034039